LOCAL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영암, 축산환경 개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35억 확보

하루 95t 규모 처리…"지속가능 농축산 모델 속도"

영암군이 축산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축산 모델의 하나로 돼지분뇨 자원화시설 구축에 들어간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는 총 87억4000만원의 예산 규모로 하루 95t 규모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이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10% 퇴비, 80% 액비, 10% 여과액비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조감도

특히 여과액비는 사철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말 기준 군 양돈농가는 29호로 9만251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다.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형 지원사업의 성격상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영암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원을 담당한다.

군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건축단계부터 악취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준 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질병 대응, 친환경 농업 확산이라는 3대 효과를 함께 이루는 의미 있는 성과다"며 "지속가능한 농축산 모델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초록믿음 쇼핑몰 역량강화

입점 업체 대상 CS·온라인 교육

강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5 초록믿음강진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쇼핑몰 입점 업체 관계자 135명을 비롯해 e커머스 교육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객 CS 교육과 실무 중심의 온라인 시스템 사용법을 함께 배웠다.

교육은 '고객과의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취지 아래 입점 업체들의 응대 능력과 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고객 클레임 대응 전략, 긍정 리뷰 유도법, 카페24 주문·배송 시스템 활용법까지 다뤄 현장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입점 업체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과 재구매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장성군이 최근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장성, 세탁물 수거·배달 '한번에'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

장성군은 최근 군청 앞에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한종 군수,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종인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 박종태 장성군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은 저소득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 차'다.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지원해 주민 호응이 높다.

기존 세탁차량이 운행한 지 10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해지자 군은 지난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세탁차량 매칭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

새로 제작된 이동세탁차량은 1.2t 규모 화물차로, 24㎏ 세탁기 2대를 탑재하고 있다. 운영은 군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지역자활센터가 맡는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2025 황토골 토요야시장 개장

먹거리·문화예술공연 등 다채

무안군은 5일 '2025 황토골 토요야시장'의 개장식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토요야시장은 '2025년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만의 이야기와 문화를 살려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요야시장은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문화예술공연, 체험형 콘텐츠, 주민참여 이벤트가 어우러진 복합형 테마장터로, 오는 10월 5일까지 전통시장의 정체성과 현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모델로 운영된다.

행사장은 맛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존', 다양한 체험과 플리마켓이 열리는 '체험존',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연존'으로 구성된다. 상인회와 사업단이 공동 개발한 특화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신안-한국해운조합, 섬 관광 활성화 '맞손'

생활인구 증가·청년인구 유입 목표…지역경제 활력 기대

신안군은최근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과 한국해운조합이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동안 침체됐던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교류와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안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대응, 해운산업과 신안군 지역경제 발전 상생 도모, 일반인(관광객) 여객운임 정부 지원 공동 대응, 흑산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반인 여객선 운임 정부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섬 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안군은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종합발전계획'에 '흑산권 관광객 운임 지원'을 건의해 체류형 관광섬으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섬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 환경정화

12일 개장 예정…편의시설 정비도 완료

목포시는 최근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해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등은 오는 12일 개장 예정이다.

이번 정화활동은 목포시 관광과 직원들이 직접 외달도에 입도해 해수풀장·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모래사장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활동과 함께 해수풀장 대형 그늘막 정비, 해수공급시설 보완,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를 모두 완료해 개장 기간 동안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외달도는 다도해 청정해역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보석 같은 섬으로, 고요한 바다 풍경 속에서 전복, 촌닭 등 목포 특유의 보양식을 맛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